



「위성사업 동향 및 국제협력」 기획특집을 내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위성기술을 개발하고 위성을 발사하여온 지도 10여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우리별 인공위성을 제작하여 발사한 이래 상용 위성방송 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이 1995년 8월 발사되어 이제 3호에 이르고 있고 지구탐사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7개의 위성을 발사하였고 내년부터는 2005년에 수명이 완료되는 무궁화위성2호의 후속 발사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주도에 의하여 실험통신위성 및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발사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신기상복합위성의 사업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발사장 구축 및 운용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성기술의 발전 및 위성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위성산업분야에 있어서 제조업분야는 우리나라의 경제난국이었던 IMF기간을 거치면서 크게 위축되어 현대전자산업(주)의 위성제조사업 대폭 축소, 삼성전자의 위성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고 서비스분야에서는 데이콤의 오리온위성발사 실패에 의한 통신위성확보사업 중단, 이리돔 및 글로벌스타의 저궤도위성사업의 원활치 못한 추진 등으로 이를 추진하여 오던 기업들이 큰 시련을 겪었다.

다행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위성제조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걸게하고 있고 서비스분야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확보한 궤도를 한국통신, 하이게인안 테나(주), 현대전자(주), SK Telecom에서 분배받아 감으로서 통신위성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금년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을 통한 위성멀티미디어서비스의 제공은 위성통신방송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일약 도약하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위성통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지구국 및 위성단말기의 상당부분이 외국제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균형적인 위성산업 발전을 위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기획특집 내용은 위성사업에 대한 동향 및 국제협력에 관한 것으로 위성방송사업, 위성통신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사업, IMT-2000서비스와 연계된 위성이동통신현황 그리고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호를 이용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해외판매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기획특집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나라의 위성산업의 무궁한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21세기 우주시대에 세계의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특집위원장 홍 완 표